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17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른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일상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며 완결된 단체적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반응하고 협력함

성경: 롬 8:2, 4, 6, 11, 엡 3:16-21, 계 21:10-11

-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정규적이며 정상적인 체험들 가운데 있는 일상의 생활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 롬 8:2, 6, 10-11, 엡 3:16-17 상.
  - A.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조금씩 날마다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분배를 천천히 꾸준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 고후 13:14, 마 6:11, 시 68:19.
    1. 영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 안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성취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보다 우리의 물질적인 생명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영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 — 요 6:57 하, 4:14, 고전 10:3-4.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전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성한 공급은 조금씩 주어진다.
  -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특별하게 화려한 방식으로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평범한 방식으로 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덜 특별하고 더 정상적일수록 더 좋다 — 골 1:27, 3:4, 엡 3:16-17 상.
  - C. 신성한 분배를 통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조용하므로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생활도 잠잠하고 조용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방식으로, 즉 신성한 분배를 받는 평범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 — 롬 8:6, 살전 5:23, 살후 3:16.
  - D.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평범한 생활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 아래서 평범한 방식으로 살도록 운명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 마 6:11, 32-34, 24:40-41.
  - E.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에 의해서, 그분을 생명으로 취함에 의해서, 또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 엡 3:17 상, 히 11:1.
  - F.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영적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성은 특별한 화려함이 없고 규칙적이며 정상적이게 될 것이다 — 롬 8:4, 6, 갈 5:22-23.

**II.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일상의 생활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른 것이다 — 딤편 1:4, 엠 3:9.**

- A.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 영에 대한 체험과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에 대한 체험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 엠 3:16-17 상.
- B.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적이며 신성한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은 기적적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 딤편 1:4, 엠 3:9.
- C. 거듭남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거듭남은 기적같은 정상, 곧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있는 기적적인 정상상태이다 — 요 3:3, 5-6, 8, 뵤전 1:23.
- 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것이다 — 롬 10:12, 갈 3:2, 롬 33:3.

**III. 우리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라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일상의 생활을 사는 것으로 더욱더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더욱더 반응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 엠 3:16-21.**

- A.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 딤편 1:4, 고후 13:14, 엠 3:16-17 상, 21, 롬 8:9-10, 6, 11.
- B.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성경의 핵심 중점이다 — 엠 1:9, 3:11, 빌 1:20-21 상.
- C.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재조성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며 완결적인 단체적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 보아야 한다 — 고후 5:17, 21, 계 21:10-11.
- D. 하나님의 경륜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하나님의 유일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요 5:17, 4:34, 빌 1:6, 2:13, 고편 15:58, 16:10.
  - 1. 우주 안에서와 또한 모든 시대에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 갈 4:19, 엠 3:17 상.
  - 2.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로 만드시는 것이다.
    - a. 이 목적이 우주의 중심이며 이 목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의미하다 — 계 4:11.
    - b.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와 하나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된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그분을 살고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한다 — 요 14:19 하, 갈 2:20, 빌 1:21 상.
    - c. 우리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상태에 따라 신성한 분배 안에 있는 평범한 생활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분의 중심적인 일에 반응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 롬 8:2, 4, 6, 11, 엠 3:14-21.